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kim.jd@kiep.go.kr

이승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srlee@kiep.go.kr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hhkim@kiep.go.kr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jgkang@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¹⁾이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유입(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FDI)과 유출(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 연구임.
 -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협상이 더딘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협상을 진행 중임.
 - 또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논의가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TPP 참여국인 영연방 3개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과의 자유무역협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음.
- 한국의 FTA 발효 추세를 반영하듯 한국의 IFDI 및 OFDI 역시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냄.
 - 한국의 대세계 IFDI 스톡(stock)은 1990년대 초반까지 100억 달러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2년 현재 1,472억 달러를 기록 중임.
 - 한국의 대세계 OFDI 스톡 역시 IFDI와 유사하게 1990년대 초반까지 100억 달러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현재 1,964억 달러를 기록함.
-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대변하는 FTA가 IFDI 및 O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본 보고서에서와 같이 한국이 발효한 FTA 협정문의 투자조항을 분석하여 투자자유화를 수치화한 연구는 많지 않음.
 -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FTA 체결 효과를 FTA 더미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어 FTA 발효 대상국의 경제규모, 경쟁력, 경제개발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로 다르게 체결한 FTA를 모두

1) WTO상의 용어로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과 같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s)으로 통칭하기로 함.

- 같은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
 - 즉 FTA로 인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정도를 명시적으로 분석에 고려하지 못함.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이론분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교역비용의 형태로 모형화하였으며,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계량분석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계량분석에서 관세변화를 적극적으로 변수로 반영함.
 - 이와 더불어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협정을 지수화하여 실증 분석에 포함
 - 본 보고서에서는 Leshner and Miroudot(2006)의 분류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문의 투자부분 주요내용을 5가지 범주, 25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지수화함.
 - 또한 상기 이론분석 및 실증분석에 의해 나타나지 않거나 간과될 수 있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사례조사를 실시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개방화와 FDI 관계에 관한 이론적 메커니즘 고찰

- 이론분석은 Markusen(2002)에 소개된 지식-자본 모형(knowledge-capital model)을 바탕으로 함.
 - Markusen(2002)의 모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면서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평적 해외투자(horizontal FDI)와 수직적 해외투자(vertical FDI)를 포괄하고 있어 일관적인 논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실증분석에 사용될 모형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장점이 있음.
-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내기업의 입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FTA로 인한 교역비용의 감소는 수평적 해외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직적 해외투자는 투자 대상국의 상대적 생산비용 혹은 임금의 차이에 따라 증가와 감소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달리 FTA로 인해 고정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수평적·수직적 투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양국 간의 상대적인 고정비용이 작은 곳으로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상을 정리하면 FTA는 고정비용과 교역비용을 모두 낮추게 됨으로 FTA가 반드시 FDI를 증가시키지는 못하며, 어느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인지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음.

2) FTA 투자관련 조항 및 투자개방지수 분석

- FTA와 해외투자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FTA 협정문 내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협정문 조항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지수화함.
 - 지수화 방법은 Leshar and Miroudot(2006)의 방식을 활용하여 본 보고서의 목적에 맞게 변형함.
 - 본 보고서에서는 20개 항목을 비서비스 분야 설립 전 단계, 비서비스 분야 설립 후 단계, 서비스 분야 투자관련 조항, 투자 규정 및 보호, 분쟁해결 등 5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투자개방의 정도를 지수화함.
- 한국이 기발효한 8건의 FTA에 대해 투자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지수화한 결과 한·미 및 한·페루 FTA의 투자개방지수가 0.9 이상으로 높게 분석됨.
 - 이와 달리 한·ASEAN, 한·인도, 한·싱가포르 FTA의 투자개방지수는 0.7 미만으로 낮게 분석됨.

3) 한국의 FDI 현황과 개방화에 의한 효과 분석

① 한국의 FDI 현황

- 한국의 대세계 IFDI와 OFDI 스톡은 최근 크게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경제규모와 개방수준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됨.
 - 한국의 대세계 IFDI와 OFDI 스톡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개방화의 노력으로 2012년 현재 IFDI는 1,472억 달러, OFDI는 1,96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
 -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IFDI 순위는 33위, OFDI의 순위는 25위로 여전히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GDP 대비 IFDI 및 OFDI의 비중 역시 각각 12.7%와 17.0%로 전 세계 비중(IFDI 32.0%, OFDI 33.1%)보다 낮음.
- 한국의 IFDI와 OFDI는 FTA 발효로 인해 단기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IFDI와 OFDI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FTA가 발효된 국가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를 비교한 결과, FTA 발효는 한국의 IFDI 및 OFDI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됨.

② 개방화가 한국의 I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 Carr, Markusen, and Maskus(2001)의 모형에 Leshner and Miroudot(2006)과 배찬권 외(2012)에서 고려한 변수를 추가하여 FTA가 I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투자지수 중 분쟁해결 방식의 개방정도를 의미하는 투자지수 5의 계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 국가-투자자 간 분쟁해결 방식이 FTA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IFD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 중 요소부존량(1인당 GDP)의 차이가 작은 국가로부터 IFDI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됨.

- 그리고 각종 FTA 투자지수와 선진국 요소부존량 간의 교호항 계수 값이 개도국 요소부존량간의 교호항 계수 값보다 절대값이 크게 나타나, FTA 체결국과 요소부존량 차이가 작을수록 한국으로 유입되는 IFDI는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직적 성격의 IFDI가 보다 많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됨.

- IFDI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은 GDP 합과 투자국의 경제 개방정도로 나타남.

- 특히 GDP 합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다른 요인이 큰 값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국의 GDP가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됨.

- 무역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관세율로 평가한 무역자유화가 확대(관세율 하락)될수록 IFDI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무역자유화로 가변비용이 감소하면 수평적 성격의 IFDI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③ 개방화가 한국의 O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 개방화가 한국의 I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과 유사한 모형을 이용한 결과,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O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FTA 체결국과의 협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관련 조항에 따라서 관련 산업의 해외직접 투자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제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협정을 포함할수록 그 국가로의 투자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도소매 산업에서의 해외직접투자는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투자협정 안에 서비스 분야의 협정이 포함되었거나 서비스 분야의 설립 전 투자에 대한 설립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 관련 산업에 관한 투자관련 조항이 포함될수록 그 대상국가로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무역 및 투자 자유화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요소부존량 차이와 상호적으로 해외직접투자에 산업별·목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제조업의 경우 각종 투자지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작을수록 혹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개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도소매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관련 산업에 관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조항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투자 대상국의 저임금활용이 목적인 해외직접투자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개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FTA 발효 및 각종 투자조항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한국의 FDI 사례조사

① 한국의 IFDI 사례조사

● 한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분야인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산업, 그리고 미래 유망산업인 의약/바이오 산업을 조사

- 사례조사 대상 분야 모두는 현재 급속히 분업화/전문화되고 있는 분야로 한 기업이 제품의 개발·생산·판매를 소화할 수 없어, 해외투자나 외주(outsourcing or offshoring)를 통한 전문화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IFDI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발달이 매우 중요함.
- 그리고 국내에 선도기업이 있는 것이 IFDI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산업의 전문화 분업화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본 축적에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이러한 지적은 제조업에서도 의미가 있으나 의약/바이오 분야와 같이 미래 유망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② 한국의 OFDI 사례조사

● 중국의 영화, 건설, 자동차 산업 관련 한국기업 진출 장벽이나 애로사항을 정리

- 조사결과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투자 관련 과도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 규제와 고용관련 이행요건의 부과임.
- 이러한 제한들은 산업별로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자유무역협상을 통하더라도 개선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규제 불일치 문제나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협상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s)의 남용문제도 애로사항으로 파악됨.

3. 정책 제언

1) 향후 ASEAN 개별국과의 협상에서 투자개방 실현 필요

- 투자개방지수를 작성한 결과 한·ASEAN의 투자개방지수는 0.53으로 가장 낮음.
 - 따라서 한·ASEAN FTA에서 달성하지 못한 투자개방을 ASEAN 개별 국가와의 양자간 FTA를 통해 실현해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이행요건 부과금지조항 협의 시 TRIMs Plus 기본원칙을 명확히하고 여기에 더해 다자간투자협정에서 논의되었던 수준으로 이행요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IFDI 확대를 위해 현재 협상 중이거나 협상준비 중인 국가와 FTA 발효 필요

-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가 IFDI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지금과 같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때 관세율을 하락시키는 무역자유화보다는 비서비스 분야 설립 전 단계, 비서비스 분야 설립 후 비차별, 서비스 분야 투자관련 조항, 투자 규정 및 보호, 분쟁해결 등 투자자유화를 확대시키는 FTA의 추진이 필요
 - 특히 국가-투자자 간 분쟁해결이 포함되었을 때 IFDI를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이를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그리고 IFDI는 요소부존량의 차이가 작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FTA 추진은 한국과 1인당 GDP 규모가 유사한 국가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1인당 GDP가 유사한 국가²⁾ 중 한국과 FTA를 발효하지 않은 국가의 대부분은 이미 한국과 FTA 협상 중이거나 협상준비 중에 있음.
- 또한 GDP 합($\ln GDP_{SUM}$)의 계수 값이 유의한 큰 값을 가지고 있고, 투자국의 GDP가 크지 않을 경우 한국으로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일정한 경제규모 이상의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것이 IFDI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분석결과에 의하면 투자국의 GDP는 최소한 1,62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분석 대상국가 중 이를 초과하고 한국과 FTA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집트 5개국임.
- 이상을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IFDI 유치 확대를 위해 현재 FTA 협상 중에 있거나 협상준비 중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양질의 IFDI 유치를 위한 국내투자 증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된 현시점에서 국가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I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투자 증대를 통한 국내산업 경쟁력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 최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발달은 업종의 세부화, 분업화, 전문화를 촉진하고 있어 다국적 기업은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지역의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자원 및 노동력을 활용함.
 - 따라서 IFDI 유입은 점점 더 산업 본연의 기술과 경쟁력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실제 의약/바이오 분야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우수인력의 육성은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유발하였음.
 - 더 나아가 다양한 국가와의 FTA의 체결은 기업의 투자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IFDI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2) 한국의 1인당 GDP(2005년 불변가격 기준) 대비 상하위 20% 내에 해당하는 국가를 최근 5년(2008~12년)동안 조사하여 한 개년도 이상 범위 내에 포함되는 국가를 한국과 1인당 GDP 규모가 유사한 국가로 선정함.

4) IFDI 유치를 위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현재 국제통상 환경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질적인 성장을 시현하게 되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도 증대될 것임.
 - 향후 우리나라의 IFDI 유치에 있어 신규투자(greenfield)보다는 인수합병(M&A)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임.
 - FTA를 비롯한 경제개방 정책을 통해 IFDI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자본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가 요구됨.

5) OFDI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 및 상대국 경제수준을 고려한 FTA 추진 필요

- FTA가 총체적인 O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각 투자지수 조항이 OFDI에 미치는 효과가 산업별로 다르게 분석되나, 산업별 특성을 파악한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즉 제조업에 대한 OFDI는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에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관련 조항이 포함될수록 그 국가로의 투자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서비스업에 대한 OFDI는 관련 서비스 분야의 투자조항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관련 산업의 투자자유화를 확대시키는 조항들을 FTA 협정문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OFDI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개도국과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서비스업에 대한 OFDI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FTA 투자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제조업에 대한 OFDI 확대를 위해서는 개도국과 FTA 협상 시 투자관련 개방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임.
 - 특히 분석결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투자에 대한 비차별 조항이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ISDS)의 도입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그리고 한국이 개발도상국들과 맺은 FTA 내의 투자협정은 개방수준이 높지 않고 위와 같은 조항들이 대부분 들어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협상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의 OFDI 확대를 위해서는 특히 선진국과 FTA 협상 시 서비스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관련 조항을 많이 포함하는 것이 요구됨.
 - 환언하면, 한국기업의 서비스 분야 투자가 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바, 우리나라와 선진국과의 FTA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 투자 보호의 강화와 차별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조항이 협정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다국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출 협력: 현지 서비스 산업과의 연결 지원

- 해외투자는 기술 수준이 높거나 일정수준 이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대기업이 유리함.
 - 이론분석에서 설명하였듯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초기투자 비용과 고정비용이 소요됨.
 - 기업의 해외진출 초기에는 시장조사 비용, 법률 및 회계 자문 비용, 문화적 이해와 관련된 비용 및 시행착오 등 국내투자자와 비교할 때 더 큰 규모의 초기투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이 해외투자를 시행하여 순수익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해외투자는 중소기업보다 자금확보, 정보수집, 투자경험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국적 대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음.

- 특히 협력관계에 있는 유사업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필요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방향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협력관계에 있는 유사업종의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진출 시 현지 서비스 분야의 접근과 정보활용을 위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정보 공유는 중소기업의 초기투자 고정비용의 감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향후 FTA 협상 등에서 상품시장 개방, 투자협정 확대와 함께 개도국의 서비스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